

‘애매했던’ 기상정보, 구체적이고 정확해진다

‘친절한’ 기상 예보가 바뀐다. 200억이 넘는 슈퍼컴퓨터 등 막대한 기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흐려질 것”이라는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예보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3시부터 흐려지겠다” 등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바뀐다는 얘기다.

“광주·전남 지역에 오전 중 안개가 짙게 끼겠다”는 두루뭉술한 예보도 “광주 서구 풍암동 지역엔 오전 중 안개가 짙겠지만 북구 운암동 지역에는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 등으로 세분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광주기상청은 구체화된 기상 정보 제공 계획 등을 포함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광주기상청의 주요 업무계획은 ‘친절한’ 기상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온다. 그동안 수집한 기상 빅데이터(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문자·영상은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지정하는 말)를 활용,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바 ‘정부 3.0’에 따른 ‘기상 3.0’ 계획이다.

광주기상청은 이를 위해 사무관·예보관으로 구성된 ‘예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고 가뭄·장마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특정 기상의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통계·예보·시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식의 예보가 아닌, “눈이 몇 시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같은 기간 최근 10년 동안 적설량은 몇 cm에 달했다”는 수준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적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가뭄, 집중 호우 시 기상 통보 전 각자치단체 방역담당관에게 SNS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재 한울타리’ 서비스의 경우 2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태껏 지역별로 예보가 쉽지 않았던 ‘국지성 특이 기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등과 연계, 교통정보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각 시·군별로 설치된 AWS(자동기상관측시스템)를 통해 기후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안개 등 국지성 기상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



광주기상청은 기상 예보과 소속 직원들이 정읍기상대와 원격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기상청 제공)

“오전엔 맑다가 오후
들면서 흐려지겠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
지 맑고, 오후 3시부터
는 흐려지겠다”

“광주·전남에 오전 중
안개가 짙게 끼겠다”

“광주 서구 풍암동 지
역엔 오전 중 안개가 짙
겠지만 북구 운암동 지
역에는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

가 있었던 기상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CC(폐쇄회로)-TV 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도로변 CCTV를 활용하면 세부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농·어민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3월부터 전남도내 키워, 천일염 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온도·

습도 등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최적지를 추천해 알려주는 ‘기후변화 적응 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후서비스’도 운영한다.

광주기상청은 이미 기상기후와 생산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향후 농·수산물에 특화된 기상기후정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기상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화된다. 당장, 스마트폰 활성화 시대에 맞춰 실시간으로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 어디에서나 누구나 필요한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기상 정보 제공 장소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168개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기상 정보 서비스도 확대하고 도로, 터널, 교량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한 ‘노면 상태 관측시스템’을 통해 눈이나 비, 안개 등 기상정보와 교통 정보를 결합한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도 운영키로 했다. 베트남·몽골 등 다문화 가정을 감안한 ‘다국어 기상정보’ 문자 서비스도 9월부터 운영한다.

미세먼지·황사도 기상청에서 예보

미세먼지·황사도 기상청에서 예보

‘통합예보실’ 설치·운영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기상 청으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의 정확도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기상청에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이 황사 예보와 분석을,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담당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 기관의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등도 제기돼 왔다.

환경부 등은 이에 따라 기상 청 국가기상센터(NMC) 내 통합예보실을 설치, 두 기관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팀과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팀은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통합예보실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0일부터 기상통보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상 청 국가기상센터(NMC) 내 통합예보실을 설치, 두 기관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팀과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팀은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통합예보실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0일부터 기상통보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환경오염 특별점검

내달 5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기간을 연휴 앞 뒤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영산강청은 29일까지 익식료 품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업체, 하·폐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

검한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영산강·섬진강과 같은 상수원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다음달 5일까지는 적발 장소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폐수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 (062-410-5115)로 신고하면 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6년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변화 내용

휘발유	경차, 소형·중형 승용	10년 또는 19만km → 15년 또는 24만km
가스	소형·중형 승용	10년 또는 19만km → 15년 또는 24만km
	경차	6년 또는 10만km → 10년 또는 192천km
경유	소형·중형 승용	10년 또는 16만km(현행 유지)

2016년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대폭 연장

2016년부터 美 기준 적용

미세먼지 허용기준도 강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배출가스 종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크게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DI(Gasoline Direct Injection) 차량 증가에 맞춰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D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을 높지만 PM(입자물질·미세먼지)이 발생한다.

국내 휘발유 승용차 판매 대수 중 GDI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18%에서 2012년에는 45.38%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비측정모드(CVS-75)에서 GDI 차량의 PM 기준을 0.004g/km에서 0.002g/km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허용 기준도 휘발유, 가스차량의 경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km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가스 차량은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허용 기준은 10년 또는 19만km이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차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서구 치평동 신축건물 매 75억
- ▶ 회정동 교원공체부근 1층상가 225㎡ 매 12.3억(보1.3억, 월600만 유형프렌차이즈 입점)
- ▶ 8층사무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 월8백, 월9.5억 포함, 직영수입 월천만)
- ▶ 월계동LCT위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랜차이즈 적합)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월5.9억 포함)
-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404㎡ 매매 8억
- ▶ 서구 마륵동 생산농지 대 5,400㎡ 매매 21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41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나대지 2,050㎡ 매매 6.9억
- ▶ 회순동 둔연 계획관리지역 전, 임야 17,200㎡ 매매 2.5억
- ▶ 남평동 우신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월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돌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010-5536-0382 062) 373-0382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